

Foreword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was established at the Adam Mickiewicz University (AMU) in 2003, so its history is rather short. However, during that short period it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studies in the Institute of Linguistics of the AMU as well. Numerous graduates of Korean Studies work actively in various fields as experts on Korea, and every year the next generation of students enrolls to study Korean language. It has been possible mainly due to the fast growing cooperation in business between Korea and Poland. There is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Warsaw, and the students of Korean Studies are taking initiative in spreading Korean culture by organizing 'The Day of Korean Culture' in Poznan every year.

But the research activities into Korean studies, which are the most fundamental and essential thing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ology in Poland, leaves much to be desired in many ways. It happens so because until now for us the educational activities have been the priority matter, besides we have not had appropriate conditions or materials for the specialized and in-depth research into Korean studies.

We have managed to organize several small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Korean Studies in Poznan so far. And at last we can publish the first scientific journal on Korean Studies in Poland. In other words, the conferences previously organized were the preparation for that great step. It is natural that in order to develop Korean Studies in Poland first of all one needs well prepared human resources and enough material for scientific research. Unfortunately we still have many serious problems in finding good and appropriate materials for our studies. Nevertheless we exert all possible efforts with determination to publish the first scientific journal on Korean Studies in Poland. Therefore it is our real pleasure and happiness to provide our readership with the first issue.

The main objective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s to become a forum for sharing and spreading the results of research into Korean studies. Therefore, the scope of the papers encompasses both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ith the hope that with the flow of time volumes will become more uniform as far as their contents is concerned.

I really would like to thank all of my colleagues from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nd from the Institute of Linguistics AMU for their research into Korean studies. My special gratitude is addressed to Park Jong-seong,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at th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who has always helped me in organizing our international conferences devoted to Korean studies in Poznan and has broadened our contacts with many scholars from Korea. I sincerely hope that this journal will grow and develop steadily but continuously. So I ask all my colleagues for their support and exertion and hope the researchers will contribute their papers to our journal and that way will help us achieve our ambitious goals.

2015. 05. 17
Oh Kyong-geun

서문

UAM의 한국학과는 2003년에 설립되어 그 역사는 매우 짧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학과는 빠르게 성장하여 언어학연구소는 물론 대학의 대표적인 학과로 발전했다. 이미 많은 수의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학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해마다 더욱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국과 폴란드 간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의 발전에 힘입은 것이 사실이다. 수도인 바르샤바에는 몇 해전부터 한국문화원이 개설되었고, 무엇보다도 UAM이 소개하고 있는 포즈난 지역에서는 우리 한국학과 학생들이 해마다 ‘한국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폴란드에서 한국학의 발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한국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아직도 미진한 실정이다. 개설된 초기부터 지금까지는 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활동이 우선이어야 했고, 게다가 학자들이 한국학에 대한 깊이 있고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건과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결과이다.

UAM의 한국학과는 그 동안 서너 차례 소규모의 한국학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이번에 마침내 한국학에 대한 전문적인 학술지를 처음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 동안의 학회들은 폴란드에서 최초로 한국학 전문 학술지를 발간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폴란드에서 한국학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 종사하는 훌륭한 인적자원 그리고 연구에 필요한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아직도 매번 자신들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한 어려운 조건/상황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에서 한국학 연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하여 마침내 폴란드 최초로 한국학 전문 학술지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인은 물론 그 동안 함께 한 모든 이들에게 이것은 정말로 큰 기쁨이요 행복이다.

우리 학술지는 무엇보다도 폴란드에서 한국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활동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와 주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학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여 출발한다. 하지만 앞으로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한국 혹은 폴란드정부 등 외부로부터의 아무런 도움도 없이 열악하고 힘든 조건에서 이 학술지가 발간되기까지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UAM 의 한국학과와 언어학연구소 모든 관계자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특히 항상 한국학국제학술대회 개최는 물론 한국의 학자들과의 교류협력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문학과 박종성 교수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부디 우리 학술지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다 크고 훌륭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한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 무엇보다도 많은 논문을 투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15. 05. 17

오경근